

제21호

주간농사정보

2025. 6. 2. ~ 6. 8.



농촌진흥청에서는 금주에 꼭 실천해야 할 주요 농업기술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매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제1장	농업정보		1
제2장	벼		4
제3장	밭 작 물		6
제4장	채 소		10
제5장	과 수		13
제6장	화 훼		18
제7장	특용작물		21
제8장	축 산		23
제9장	양 봉		27

요 약

분야	핵심기술 및 정보
농업 정보	• (기상) 기온은 평년(19.7~20.9℃)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4.8~18.5mm)과 비슷하겠음 * 이동성 고기압 영향(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 • (저수율) 77.4%(평년 68.8%의 112.5%) * 5. 26. 기준
벼	• (모내기) 지역별 알맞은 품종을 적기에 모내기하여 수량 확보 및 미질 향상 • (잡초방제) 모내기 전후 두 차례 방제하고 처리 후 3~5cm 깊이로 5일 이상 담수 • (물관리) 모낸 직후 7~10일간 5~7cm 깊이로 담수, 새끼 칠 때는 2~3cm로 담수 • (비료사용) 질소질 비료의 과잉은 쌀 품질 저하의 원인이므로 적정 시비
발작물	• (맥류 수확) 보리 수확적기는 출수 후 40일 이후이며 수매용은 수분 함량 13% 이내, 저장용은 12% 이내로 건조 • (콩) 적기 파종, 논 콩 배수구 설치, 파종 후 3일 이내 토양 적용 제초제 처리 • (조) 습해에 약하므로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서 재배, 적기 파종 • (팥) 적기 파종, 파종간격 60×10~15cm, 적기 파종량 10a당 3~4kg
채소	• (노지고추) 생육상태에 따라 웃거름 시기·양 조절, 적정 토양수분 유지 및 병해충 방제 • (마늘·양파) 적기 수확, 중만생종 양파는 너무 늦게 수확하면 저장성이 떨어지므로 도복 후 잎이 마르기 전에 수확 • (마늘 주아재배) 구 마늘 수확 직전·동시에 주아를 채취하여 저장 • (고랭지배추) 육묘 시 방충망 피복 및 순화, 뿌리혹병·칼슘결핍증 예방
과수	• (6월낙과) 마무리 적과 늦추어 실시, 배수관리 철저, 영양제 살포 자제 • (우박피해) 피해 정도에 따라 착과량 조절, 살균제 살포하여 2차 감염 방지 • (병해충 방제) 사과(5월은 붉은별무늬병, 점무늬낙엽병, 장마 후 탄저병 방제) 복숭아(낙화 후 세균구멍병, 탄저병 방제), 해충(진딧물, 복숭아순나방 방제)
화훼	• (접목선인장) 정식 후 발근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75% 정도의 높은 차광이 이루어지도록 40% 정도의 차광망을 1겹 더 씌운 후 벗겨줌
특작	• (인삼) 고온기 2중직 차광망을 덧씌워 해가림 내부의 온도와 광량을 낮추어 주고, 토양이 건조한 경우 점적파이프를 이용하여 관수해 줌 • (약용작물) 점무늬병, 흰가루병, 응애 등 병해충 발생 초기에 방제 • (느타리버섯) 버섯이 생육하는 동안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기형버섯이 되므로 버섯 형태에 따라 환기를 조절해 줌
축산	• (가축관리) 축사환경 적정 온습도 관리 및 청결 유지, 무더위 대비 시설점검 • (매개곤충질병) 용법에 맞는 백신 접종, 축사환경개선, 살충제 분무 등 • (사료작물) 재배환경 고려 작목선택, 논재배시 배수관리 및 집단화 중요
양봉	• (유밀기 벌무리 벌집 배열)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빈 벌집과 덧통을 활용 • (분봉열 예방) 분봉열 발생을 예방하여 채밀용 벌무리 관리 • (질병 예방) 채밀로 약제사용이 불가하므로 봉군 질병 상태 확인 철저



제1장 농업정보

1 기상 상황 및 전망

○ 최근 1개월(2025.4.24.~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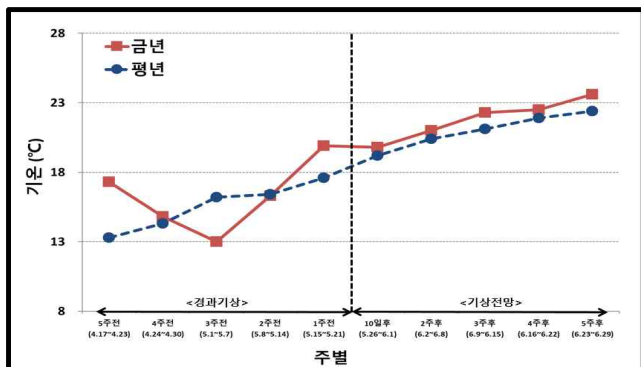
- 기온은 16.0℃로 평년(16.1)보다 0.1℃ 낮았음
- 강수량은 115.0mm로 평년(101.1)보다 13.9mm 많았음(113.7%)
- 일조시간은 201.4시간으로 평년(205.6)보다 4.2시간 적었음(98.0%)

○ 1개월 전망(2025.6.2.~6.29.) * 기상청: 2025. 5. 22. 1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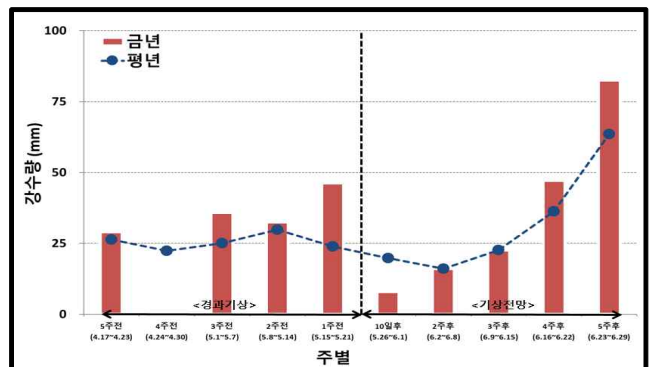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 * 이동성 고기압(6월 2주)과 고기압(6월 3~4주)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서쪽에서 다가오는(6월 2주), 남쪽을 지나는(6월 3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6월 4~5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음

구 분	평 균 기 온	강 수 량
6월 2주 (6.2.~6.8.)	평년(19.7~20.9℃)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4.8~18.5mm)과 비슷
6월 3주 (6.9.~6.15.)	평년(20.6~21.6℃)보다 높음	평년(8.6~23.8mm)과 비슷
6월 4주 (6.16.~6.22.)	평년(21.5~22.3℃)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11.4~25.1mm)과 비슷하거나 많음
6월 5주 (6.23.~6.29.)	평년(21.8~22.8℃)보다 높음	평년(29.5~79.1mm)과 비슷하거나 많음

○ 최근 기상 경과와 전망



<기 온>



<강수량>

* 자료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연구관(063-238-2518)

2

저수율 및 강수량 현황

□ 전국 저수율 : 77.4%(평년 68.8%의 112.5%) * 5. 26. 기준

(단 위 : %)

년도 \ 시도	전국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년(A)	77.4	79.4	71.8	75.5	78.0	76.5	78.6	79.1	72.0	82.9	56.4
전주대비	(↓4.9)	(↓5.0)	(↓7.0)	(↓6.5)	(↓6.3)	(↓8.1)	(↓4.6)	(↓4.1)	(↓3.7)	(↓3.7)	(↓0.1)
평년(B)	68.8	60.5	63.6	71.6	66.6	66.9	67.6	68.4	70.0	75.2	60.3
평년대비(A/B)	112.5	131.2	112.9	105.4	117.1	114.3	116.3	115.6	102.9	110.2	93.5

□ '25년 누적 강수량 : 260.7mm(평년 298.8mm의 87.2%)

(단 위 : mm)

년도 \ 월	1	2	3	4	5/26 까지	5/27 이후	6	7	8	9	10	11	12	합계
금년(A)	16.9	15.7	48.3	67.3	112.5									260.7
평년(B)	26.3	35.7	56.5	89.7	90.6	11.5	148.2	296.5	282.6	155.1	63.0	48.0	28.0	1,331.7
A/B(%)	64.3	44.0	85.5	75.0	124.2									19.6

○ 시도별 누적 강수량 ('25.1.1.~5.26.)

(단 위 : mm)

년도 \ 시도	평균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년(A)	260.7	299.2	255.0	231.3	236.6	234.1	282.1	346.6	211.3	294.2	529.1
평년(B)	298.8	229.2	240.9	272.3	259.5	263.1	283.6	364.2	260.7	395.3	502.9
A/B(%)	87.2	130.5	105.9	84.9	91.2	89.0	99.5	95.2	81.1	74.4	105.2

○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25.3.27.~5.26.)

(단 위 : mm)

년도 \ 시도	평균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년(A)	182.9	237.4	190.6	153.4	162.6	155.0	177.6	250.9	150.1	220.0	349.1
평년(B)	187.4	162.1	165.3	170.0	166.2	166.1	167.0	219.4	163.9	251.3	278.4
A/B(%)	97.6	146.5	115.3	90.2	97.8	93.3	106.3	114.4	91.6	87.5	125.4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제공 : 농촌진흥청 정은수 지도사(063-238-1052)

참 고

이상기후 감시 · 전망정보

□ 주간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전망(2025. 6. 2. ~ 6. 8.)



○ 주요 지점별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기준

지 점	이상저온 기준	이상고온 기준	지점	이상저온 기준	이상고온 기준
	최저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춘천	13.3℃ 미만	30.4℃ 초과	강릉	13.9℃ 미만	29.1℃ 초과
서울	15.1℃ 미만	29.4℃ 초과	인천	14.6℃ 미만	27.8℃ 초과
청주	14.3℃ 미만	29.9℃ 초과	대구	15.4℃ 미만	31.1℃ 초과
전주	14.5℃ 미만	29.9℃ 초과	광주	15.4℃ 미만	30.3℃ 초과
부산	15.6℃ 미만	25.7℃ 초과	제주	16.3℃ 미만	25.1℃ 초과

※ 해당 주의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전망은 주 평균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이상저온·이상고온에 대한 발생 가능성(확률) 전망을 나타내고, 발생 가능성 백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이상저온·이상고온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평년(1991~2020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이상저온은 최저·최고기온이 10퍼센타일 미만, 이상고온은 최저·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 초과 범위로 정의하였습니다.



※ 퍼센타일: 평년 동일 기간에 발생한 기온을 비교하여 작은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백분위수 [출처: 기상청]



제2장 벼

1 모내기

- 지역별 알맞은 품종을 적기 모내기하면 수량 확보 및 미질 향상에 유리함
 - 2모작 늦모내기, 산간지대에서는 어린모 기계이앙을 지양함
 - 어린 모는 중묘(중간모)보다 출수가 3~5일 늦으므로 적기 내에서도 일찍 모내기를 끝마쳐야 함
- 너무 일찍 모내기하면 무효분얼(이삭이 안 달리는 가지)이 많아져 통풍이 잘 안되어 병해 발생이 늘어나고 고온기 등숙에 따른 호흡 증가로 벼알의 양분 소모가 많아져 금간쌀(동할미)이 늘어남
 - 등숙 적정온도는 20~22℃ 임(출수 후 40일간 평균온도)
- 완전미 수량 및 품질을 고려한 지역 및 지대별 중묘(중간모) 모내기 실시
 - 최근 기후 온난화에 따라 벼 모내는 시기가 지대별 적기보다 조금씩 늦춰지고 있어,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내기 적기보다 이른 시기 모내기는 피해야 함

<지대별 모내기 적기>

지역	지 대	이앙적기(월, 일)			최적 이앙기(월, 일)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
충부	충북부내륙 평야지	6.4.~6.10.	5.18.~5.24.	5.15.~5.21.	6.7.	5.21.	5.18.
	충부평야지	6.9.~6.14.	5.27.~6.2.	5.15.~5.21.	6.12.	5.30.	5.18.
	중간지	5.21.~5.27.	5.8.~5.14.	-	5.24.	5.11.	-
	중산간지	5.19.~5.25.	5.8.~5.14.	-	5.22.	5.11.	-
	해안지	6.2.~6.8.	5.20.~5.26.	5.10.~5.17.	6.5.	5.23.	5.13.
호남	평야지	6.13.~6.19.	6.3.~6.10.	5.27.~6.5.	6.16.	6.7.	6.1.
	중간지	6.5.~6.11.	5.28.~6.3.	5.25.~6.1.	6.8.	5.31.	5.28.
	해안지	6.15.~6.21.	6.9.~6.15.	6.1.~6.7.	6.18.	6.12.	6.4.
영남	평야지	6.13.~6.19.	6.11.~6.17.	6.5.~6.11.	6.16.	6.14.	6.8.
	중간지	5.28.~6.4.	5.21.~5.27.	5.19.~5.25.	6.1.	5.24.	5.22.
	중산간지	5.25.~6.1.	5.14.~5.20.	5.10.~5.17.	5.28.	5.17.	5.13.
	냉조풍지	5.11.~5.17.	5.9.~5.15.	5.7.~5.13.	5.14.	5.12.	5.10.

* 이앙적기 추정 : 완전미 수량을 위한 최적 출수기와 각 지역 지대별, 숙기별 대표 품종의 출수 생태특성으로 산출

* 어린 모는 이삭패기가 중묘(중간모)보다 3~5일 늦어지므로 1주일 정도 빨리 심음

2

잡초 방제

- 논 잡초(피, 물달개비, 올챙이고랭이 등)는 벼 모내기 전·후 2차례로 나눠 방제를 실시함
 - 씨레질 후 모내기 5일 전에 적용약제를 1차로 처리하고 이앙 후 12~15일에 2차로 살포함
- 잡초는 발아 또는 출현 후에 제초제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린 다음에는 물을 3~5cm 깊이로 최소한 5일 이상 유지하여야 함

3

물관리

- 모내기할 때 물이 깊으면 결주가 많이 발생하므로 2~3cm 정도로 얇게 물을 대어줌
- 모를 낸 직후부터 7~10일간은 모 키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5~7cm)로 물을 대주어 수분 증산을 적게 시킴
- 새끼 칠 때는 물을 2~3cm 깊이로 얇게 대어 참새끼를 빨리 치도록 유도함

4

비료 사용

- 쌀의 품질은 질소질 비료량이 증가할수록 완전미 비율이 떨어지고 청미, 유백미, 심복백미가 증가하며 쌀의 투명도가 떨어져 품질을 저하시킴
- 질소질 비료의 과잉 사용은 쌀의 단백질 함량 증가와 도복에 의해 간접적으로 미질 및 수량 저하 등이 발생하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부받은 시비 처방서에 따라 비료량을 적용

* 자료제공 : 국립식량과학원 이승규 지도사(063-238-5212)

( 맨 앞으로)



제3장 발 작 물

1

맥류 수확

□ 보리

- 벼 이앙 등 뒷그루 작물 재배를 고려하여 적기에 수확함
 - 수량 및 종실 수분 과다에 의한 손실량, 작업능률, 밭아울 등을 고려해 보면 출수 후 40일 이후가 수확적기임
 - 청보리+벼 작부체계 시 벼 이앙 적기(중부지역 5월 하순, 남부지역 6월 상순)를 고려할 때 중부지역에서는 호숙기~황숙기 초기, 남부지역에서는 황숙기 초기가 적당함
- 종자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수확 전에 이형주, 병해충 발생 이삭 등을 제거함
- 탈곡한 보리는 건조 및 조제를 잘하여 수매하거나 저장하되 수매용은 수분을 13% 이내로 말림

□ 밀

- 수확시기에 따라 밀 제분율은 출수 후 46일은 75.4%, 출수 후 49일은 76.5%이고 회분 함량은 46일이 약간(0.06%) 높음
- 수확한 밀은 정선 시 건조, 조제 과정에서도 풍구의 풍속을 가능한 최대로 하여 이병립을 제거함
- 저장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곡실의 수분 흡수를 막음
- 탈곡한 밀은 건조 및 조제를 잘하여 수매하거나 저장하되 수매용은 수분을 12% 이내로 말림

□ 붉은곰팡이병 발생 포장 관리

- 붉은곰팡이병 이병립률이 다소 높은 필지의 수확 작업은 수확 시 콤바인 풍구의 풍속을 가능한 최대로 높여 이병립을 제거함
- 수확 곡립의 정선 시 건조 및 조제 과정에서도 풍구의 풍속을 가능한 최대로 하여 이병립을 제거함
- 붉은곰팡이병에 감염된 곡립은 수확 후 즉시 건조하여 수분함량 (13% 이하)을 낮추어 주어야 건전 곡립에 이병 되지 않음
 - 수확 후 이병 곡립을 방치하면 방치 기간에 따라 이병립 발생이 급속히 증가함
 - 이병 종자의 수확 후 방치 기간에 따른 이병립 발생

구 분	수확직후	1일	2일	3일	4일
이병립률(%)	36.9	46.1	50.9	62.0	61.0
수분함량(%)	39.7	37.7	35.4	35.4	34.5

- 저장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곡실의 수분 흡수를 막아줌
- 붉은곰팡이병에 감염된 포장에서 수확된 종자를 이듬해 종자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여 종자에 의한 감염을 막아줌

2 콩

- 밭 콩 재배 시 기계로 파종할 경우 종자 크기에 따라 롤러 홈을 조절하여 적정량을 파종함
 - 땅이 비옥하여 웃자람이 우려되는 경우 파종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 좋음
 - 콩 지대별 파종시기는 타작물+콩 2모작의 경우 중북부지역은 6월 상순~중순, 남부지역은 6월 중순~하순임

- 논 콩 재배는 이랑 또는 두둑재배를 하되 도랑 배수구 및 암거 배수 시설 설치로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함
- 경운 시 토양개량제를 동시에 살포하는 것이 좋음
- 파종 깊이는 대립종 3~4cm, 소립종은 2~3cm가 적당하며 토양습도에 따라 깊이 조절이 필요함
- 파종 후 3일 이내에 토양 적용 제초제를 처리하여 김매는 노력을 줄이도록 함

3

조

- 조는 물 빠짐이 잘되고 비옥한 사양토가 가장 좋음
- 저습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토양에 가능하고 척박한 개간지에서도 잘 적응함
- 조는 습해에 약하므로 지하수위가 60cm 이상의 높은 논이 좋음
- 발아율 60~75% 수준으로 소금물가리기 필요(물 1리터+소금 43.3g)
- 파종 적기는 남부 지역은 6월 상순~하순, 중북부 지역은 6월 상순~중순
- 비닐 피복재배는 이랑너비 60cm에 포기사이 10cm로 하고 포기당 3~5알을 파종함

4

팔

- 파종 적기는 만생종은 6월 중순, 조·중생종은 6월 하순, 파종 한계기는 중북부 지역은 7월 중순이고 남부지역은 7월 하순~8월 상순임
- 파종간격은 이랑 60cm, 포기당 10~15cm로 심으며 파종량은 10a당 3~4kg이고 늦게 파종할 때는 5~7kg임

파 종 기	포기사이		
	10(cm)	15(cm)	20(cm)
6월 10일	101	107	96
6월 25일	109	112	100*
7월 10일	97	86	82

* 수량지수 100의 해당 수량은 164kg/10a, 이랑 간격 60cm 기준

*** 자료제공: 국립식량과학원 김정현 지도사(063-238-5373)**

( 맨 앞으로)



제4장 채 소

1 노지고추

- 웃거름 주는 시기와 양은 생육상태에 따라 조정을 해 주도록 함
- 제초 노력을 줄이기 위해 부직포, 흑색비닐, 벚짚 등으로 고추 헛골을 피복
- 석회 결핍과 예방을 위해 토양 수분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염화칼슘 0.3~0.5% 액으로 엽면시비 실시
- 비가 자주 내리면 역병(疫病, 돌림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역병이 많았던 포장 등은 적용약제로 관주하는 등 사전예방 실시
- 고추 착과 초기에 우박피해로 분지가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 측지를 유인하여 관리하면 어린 묘나 노숙 묘를 새로 심는 것보다 유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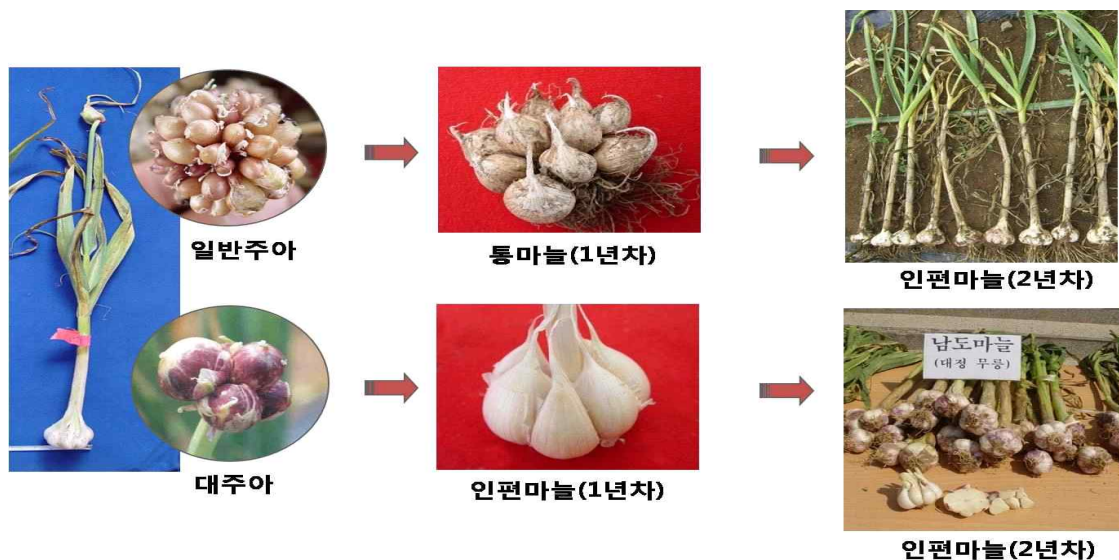
2 마늘·양파

- 마늘은 수확기가 가까워지면 하위엽과 잎의 끝부터 마르기 시작하는데 1/2~2/3 정도 말랐을 때 수확
 - 날씨가 좋은 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캐어 밭에서 2~3일간 말리는 것이 좋음
 - 특히 켈 때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을 털기 위해서 호미나 삽 등으로 마늘을 두드리면 상처가 나 부패하기 쉬움
- 양파는 도복이 시작될 때에는 하루에 10a당 약 200kg씩 수량이 증가하며 도복 후에도 지상부가 완전히 고사할 때까지 구의 비대가 계속되므로 도복이 진행될수록 수확량은 많아짐
 - 중·만생종의 경우 너무 늦은 수확은 병해충의 피해로 저장성이 떨어지므로 도복 후 잎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좋음

3

마늘 주아재배

- 주아는 인편과 달리 바이러스 감염 밀도가 낮고, 한해 재배로 대량의 통마늘을 수확하여 그다음 해엔 씨마늘로 사용 가능한 구마늘을 수확할 수 있음
 - 마늘종을 뽑지 않고 키우면 끝부분에 작은 마늘 주아가 50~100여 개 달림 → 가을에 심어 다음 해 50원짜리만 한 둥근 통마늘을 수확 → 통마늘을 다시 심어 키우면 일반 구마늘 수확 가능
 - 통마늘을 얻는데 일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해마다 주아재배를 이어서 하게 되면 첫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씨마늘로 사용 가능한 구마늘을 수확할 수 있음
- * 마늘 생산비의 약 35%를 차지하는 종구비를 절약하고, 바이러스 감염 밀도 감소로 수량성 약 15%까지 올릴 수 있음
- 구마늘 수확 직전 또는 동시에 마늘종과 함께 주아를 채취하여 양파망 등에 넣어 파종기까지 통풍이 잘되게 관리해 줌
 - 일정한 크기의 튼실한 주아만 선별하여 소독 후 파종, 주아 5~10개씩 심어주며 이후 재배관리는 일반 마늘재배와 동일함



<마늘 주아재배 과정>

4

고랭지배추

- 육묘 중인 배추는 진딧물에 의한 바이러스 전염 및 각종 해충의 피해 경감을 위해 방충망으로 피복함
- 아주심기 1주일 전에는 포장 환경에 견딜 수 있게 관수량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어 모종을 순화시킴
- 뿌리혹병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정식 직전 토양 전면 혼화 처리하거나 아주심기 전 해당 약제에 어린 모를 침지하여 사전 예방을 하도록 함
- 칼슘결핍증 예방을 위해 균형 있는 비료 주기를 하고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며 결핍증상 우려 시 염화칼슘 0.3% 액을 엽면시비



〈뿌리혹병〉



〈칼슘결핍 증상〉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예림 지도사(063-238-6421)

( 맨 앞으로)



제5장 과 수

1

6월 낙과 발생원인 및 대책

□ 6월 낙과란?

- 생리적 낙과란 개화 직후로부터 성숙기까지의 과실 발육기간 중에 일어나는 기계적 낙과나 병충해에 의한 낙과를 제외한 그 밖의 원인에 의한 낙과를 말함
-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감나무 등 여러 과수에서 일어나며 특히 6월경에 발생하는 유월낙과(june drop)의 정도는 과실의 수량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중요시되고 있음

□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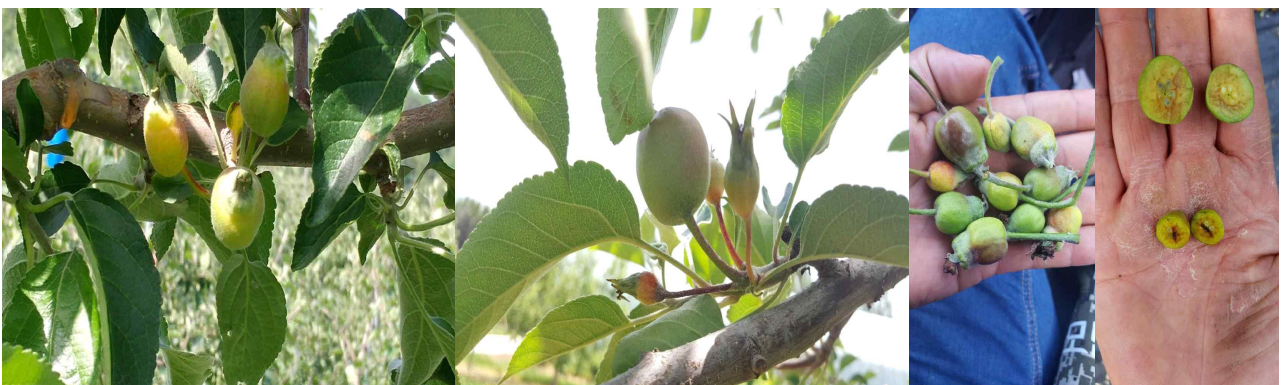
- 만개 후 5~20일 사이에 일어나는 초기낙과는 암술의 불완전이나 불수정에 의한 낙과가 대부분이나 그 후의 낙과는 주로 수정이 되었더라도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배의 발육이 정지되어 일어나는 낙과임
- 6월 낙과와 같이 조기낙과의 후반기에 일어나는 낙과는 일조부족, 수세과다, 토양수분의 과잉 또는 부족, 고온 또는 저온 등으로 인하여 배의 발육이 정지되어 낙과하는 것으로 알려짐
- 조기낙과는 과실이 일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떨어지는 시기와 적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 어떠한 과상을 이루고 있음
 - 첫 번째에서는 비정상적인 꽃, 수분이 되지 않은 꽃, 수분은 되었지만 수정이 되지 않은 꽃이, 두 번째에서는 수정은 되었지만 배가 퇴화된 것, 세 번째에서는 개화 7~9주 후에 일어나는 유월낙과임

□ 사전대책

- 수정을 확실하게 하여 과실 내 종자수가 많아지도록 유도
 - 적절한 수분수 재식, 화분매개곤충 방사, 인공수분 실시 등
- 영양상태의 조화
 - 유월낙과는 새가지와 과실 간의 양분과 수분 경쟁에 따른 공급 불균형으로 종자 배(胚)의 발육이 억제되거나 퇴화되어 일어나므로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질소와 잎에서 만들어지는 동화양분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개화 후에는 꽃 또는 열매숙기를 철저히 하여 새가지와 과실 간, 과실과 과실 간의 양분경쟁을 줄임

□ 사후대책

- 낙과현상 발생이 심한 과원은 마무리 적과를 늦추어 실시
- 과원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관리 철저
- 수세 강한 과원은 영양제 살포 자제



2

우박피해 과원 관리요령

□ 사과

- 우박 피해를 받으면 이후 수세안정을 고려해 적당히 과실을 남겨둠
- 살균제를 살포하여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 과실이 열과 된 경우 살균제를 1회 추가 살포하여 2차 피해 예방

□ 배

- 피해 정도에 따른 착과량 조절

피해정도	피해 발생 시기	
	낙화 직후 ~ 5월 중순	5월 하순 ~ 7월
I (극심)	50~60% 줄여 착과	전부 적과
II (심)	20~30% 줄여 착과	30~50% 줄여 착과
III (중)	10% 줄여 착과	10% 줄여 착과
IV (경)	정상착과	정상착과



○ 수세 회복과 화아형성을 위한 신초 발생 유인

- 새순이 부러진 가지는 수세 회복과 화아형성을 위하여 피해 부위 바로 아랫부분에서 절단하여 새순을 발생시킴

○ 상처 부위의 병 감염 방지 및 잎의 활력 증진을 위한 관리

- 상처 부위를 통한 2차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살균제 살포

□ 포도

○ 우박피해 송이는 잣빛곰팡이병 등의 발생원이 되므로 신속히 제거

○ 잎, 가지 등의 손상 정도에 따른 착과량 조절로 수세 유지

- 우박피해 후 수세 회복을 위해 착과량을 조절하는데, 송이를 일정 수 확보하여 포도나무가 지나치게 생장하는 것을 방지
- 수세가 약한 나무는 송이수를 줄여 새가지를 충실하게 기름
- 7월 이후 우박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송이 제거, 엽면 시비 등을 처리하여 수세 회복

□ 복숭아

○ 가지 및 줄기가 손상된 경우 수세 회복과 이듬해 과실 착과를 위해 손상된 과실은 제거하고 수피가 손상된 가지와 신초는 갱신

* 복숭아는 수피가 손상된 가지와 줄기는 계속 이용 곤란하므로 가급적 제거

○ 우박 피해를 받은 신초 및 가지는 절단하여 새 가지 및 결과지 확보

- 기존 신초를 2~3cm 남기고 절단할 때 신초 발생이 촉진됨

* 7.30일 이전에는 강하게 절단하여 새가지 발생 유도, 7.30일 이후에는 기존 꽃눈을 남기고 절단

3

병해충 방제

□ 사과

- 꽃이 진 후 5월 상·중순경에는 붉은별무늬병, 곰팡이병, 점무늬낙엽병, 탄저병 등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전용약제 살포
 - 5월 하순 이후 장마가 되면 탄저병과 점무늬썩음병 감염 증가
- 해충은 5월 상순경 복숭아순나방 제1세대가 신초나 어린과실에 피해를 주는 시기이므로 중점적으로 방제 필요
 - 5월 하순 이후는 사과나무 새가지 생장이 많아 조팝나무진딧물 방제가 필요하며 기온이 올라가면 응애류를 중점 방제

□ 복숭아

- 세균구멍병은 잎, 가지, 과실에 발생하며 과실에 큰 피해를 줌
 - 4월경 기온이 상승하면 월동처의 병원균이 증식하고 빗물, 바람에 의해 전파
 - 약제 방제는 낙화 후 생육기에는 적용약제를 2~3회 살포
- 탄저병은 4~6월 강수량이 300~400mm 정도로 많은 지역에 다발생함
 - 5월부터 발생하여 발병 최성기는 6~7월이고, 빗물에 의해 전파
 - 낙화 후부터 봉지 씌우기 전까지 2~3회 정도 적용약제 살포
- 해충은 5월 상순경 복숭아순나방 제1세대 시작하여 실제로 과실을 가해하는 6월 중순부터 예찰 후 발생 초기 방제 필요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환규 지도사(063-238-6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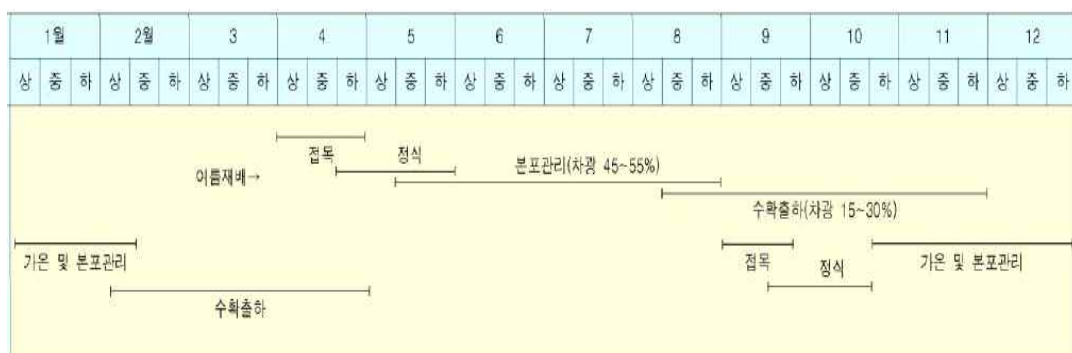
( 맨 앞으로)



제6장 화 화

1 접목선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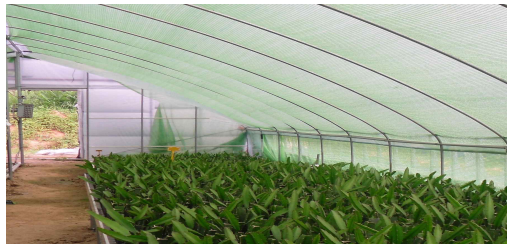
- 접목 선인장은 서로 다른 식물을 접목하여 만든 식물로, 대부분 비모란이나 산취와 같은 식물을 접수로 사용하고 삼각주를 대목으로 사용
- 다소 건조한 환경이나 강한 햇빛에도 잘 견디는 특징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분화(盆花)로 많이 이용되며, 화훼 수출 품목 중에서도 1위를 차지
 - 선인장은 대부분 강한 햇빛을 좋아하나, 비모란, 산취, 계발선인장 등 일부 종은 약광을 좋아함(40~50% 차광재배)
 - 차광 정도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품종 고유의 색상이 발현하지 못하여, 자구색이 원래 색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배 시 주의함
 - 일반적인 접목선인장 재배 작형



- 접목선인장은 2~6월 사이에 많은 생산과 수출이 이루어지고 8~9월에 일부 수출하며 10월 이후에는 대부분 수출을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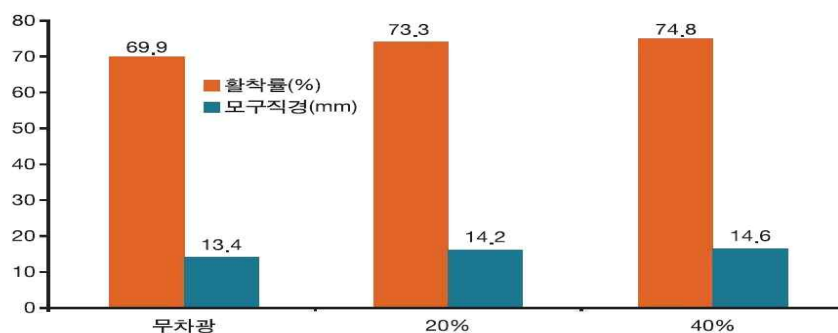
○ 정식 후 광 환경은 생육 및 접목 활착률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선인장은 대부분 강한 햇빛을 좋아하나, 비모란·산취·계발선인장 등의 일부 품목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강광보다는 차광 처리가 필요
- 일 년 중 가장 많이 재배하는 4~5월 정식 시 45~55% 정도의 차광망으로 차광하였을 때 무차광이나 20% 차광에 비하여 활착률과 구경 생육이 높았음



<접목선인장 차광재배 모습>

- 발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강한 광이 주어진다면 체내의 수분 증발에 의하여 활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식 후 발근이 이루어지는 1개월까지는 75% 정도의 높은 차광이 이루어지도록 40% 정도의 차광망을 1겹 더 씌운 후 벗겨줌



<재배 중 차광 정도에 따른 활착률과 모구직경(2개월 후)>

- 접목선인장의 차광재배는 생육 이외에도 접목선인장의 고유 색상 발현에도 효과가 있음

• 차광 차이에 따른 품종별 색상



<이홍>



<황선>



<색조>

- 접목선인장 재배 시 너무 강한 차광이나 일기 불손으로 광이 부족하면 진녹색이나 적색, 황색 등의 원래 색상이 옅어지고, 가시의 굵기나 크기가 전보다 가늘고 약해지면서 뽕족하게 도장하게 됨으로, 이러한 증상과 같은 일조 부족 현상은 충분한 광 조사로 회복됨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소희 연구사(063-238-6422)

( 맨 앞으로)



제7장 특용작물

1 인삼

- 고온기에는 2중직 차광막을 한겹 더 피복하여 해가림 내 온도와 광도를 낮춰 해가림 내부의 온도를 낮춰줌
 - 재배되는 품종에 따라 고온에 대한 저항성이 다르며, 4년생 인삼에 ‘천풍, 금풍, 금선, 선운, 재래종’은 고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므로 주의함
- 뿌리가 신장하는 6월 중순까지는 토양이 건조할 경우에는 염류장해에 의한 잎의 황화현상, 조기낙엽, 종자의 결실불량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관수 관리로 생리장해와 고온장해를 예방해 줌
 - 관수는 반드시 상면에 부초를 하고 실시하되 일시에 다량의 물을 주면 겉흙의 토양공극이 파괴되므로 소량을 서서히 관수해 줌
 - 건조한 토양에서는 점적 파이프를 이용하여 2~3일 간격으로 2시간씩 시간당 약 2L정도/칸(90cm×180cm)를 관수해 줌

2 약용작물

- (점무늬병) 오미자, 작약, 도라지, 당귀 등의 잎과 줄기에 주로 발생하며 부정형의 갈색 병반을 형성함
 - 토양 중 질소질 함량이 많으면 지상부의 생육은 왕성하나 연약하게 성장하여 병원균 침입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병이 심함

- 발병 초 적용약제를 통해 방제하며 전년도에 병에 걸린 식물체의 잔재를 제거하고 배수를 철저히 하여 전염원의 이동을 방지
- (흰가루병) 황기, 작약 등의 잎, 잎자루, 줄기에 발생하며 잎의 표면에 흰가루 형태의 병징을 형성함
 - 주로 장마기에 전염되며 장마 후 온도가 높고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많이 발병함
 - 발병 초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하며 병든 잎은 일찍 제거하여 전염원을 없애줌
- (응애류) 당귀, 감초, 더덕, 황기 등에 발생하는 차응애, 점박이응애는 잎에 흰색 반점을 형성시키고 마르게 하기도 하며 구기자에 발생하는 구기자혹응애는 혹을 형성하고 내부 조직을 갉아 먹음
 -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재배포장을 면밀히 관찰하여 피해주를 발견하였을 때 해충을 포살 하거나 등록된 적용약제 살포

3

느타리버섯

- 느타리버섯은 생육하는 동안 산소가 부족하면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져 자실체가 기형이 되므로 환기를 계속 해야 함
 - 환기는 버섯의 형태에 따라서 조절하는데 버섯 갓이 크고 줄기가 짧으면 환기량을 감소시키고 반대 현상일 때에는 증가시켜 줌
- 고온이 지속되면 버섯파리 발생이 많아지게 되므로 재배사 환기창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버섯파리의 침입을 막고 외부에 살충제를 살포하여 해충의 유입을 방지해 줌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다인 지도사(063-238-6452)

( 맨 앞으로)



제8장 축 산

- (가축관리) 축사환경 적정 온습도 관리 및 청결 유지, 무더위 대비 시설점검
- (매개곤충질병) 용법에 맞는 백신 접종, 축사환경개선, 살충제 분무 등
- (사료작물) 재배환경 고려 작목선택, 논재배시 배수관리 및 집단화 중요
- * 가축질병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 신고(1588-9060, 1588-4060)

1

초여름 가축 및 축사환경 관리

- 초여름 온도가 높아지면 체내 대사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폐사로 이어짐
 -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송풍팬을 가동해 체감온도를 낮춤
 - 지붕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차광막을 설치하여 온도상승을 줄임
 - 지붕에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축사 내에 안개분무장치 활용
 - 단위면적 당 사육두수를 평시보다 10~20% 줄여 온도상승을 줄임
 - 사료는 조금씩 자주 급여하고, 사료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한우)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고온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축 및 축사 환경관리에 신경 써야 함
 - 축사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보수하여 피해를 방지하며 축사 주변은 깨끗이 청소한 후에 소독하는 것이 좋음
- (젖소) 급격한 온도 상승에 의해 면역력 저하로 유방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①규칙적인 착유 관리, ②우사와 착유실, 착유도구의 청결 관리, ③축사 바닥 건조 및 깔짚 교체 등 환경관리가 중요
- (돼지) 일교차가 크면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돈방의 온도 차가 최대 10℃ 이상 나지 않도록 관리함

- 특히, 어린 돼지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초유를 충분히 먹이고 바닥은 건조하게 유지하며, 내부습도는 60% 내외로 유지
 - 돈방에 너무 많은 돼지를 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돈사 내 분뇨를 자주 처리하며 돈사 내 가스 발생량과 온도를 고려하여 환기팬 회전속도를 조정
- (닭) 병아리는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 사육 환경에 따라 체중 균일도와 사료 효율이 달라지므로 적절한 온습도 및 환기 관리가 중요

2 매개곤충 유래 가축질병 예방

- 초여름 날씨가 모기, 진드기와 같은 흡혈곤충 발생이 늘어 매개체성 가축질병 예방에 신경써야 함
- 모기매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 발생 시기 전 백신접종 필요
- 대표질병: (소) 럼피스킨, 아까바네, 유행열, (돼지·말) 일본뇌염
 - 해당 백신 설명서의 투여경로, 접종월령 등 방법에 맞게 접종해야 백신 항체가 생성되어 예방 효과가 나타남
 - 모기 증식을 최소화하도록 축사 위생 상태 개선, 방충망 설치, 포집기 설치, 축사 주변 물웅덩이 제거, 배수시설 점검, 살충제 분무 등 필요
 - 살충제 분무 시 허가약품 사용, 가축 피부접촉과 흡입으로 인한 살충제 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진드기가 옮기는 주요 가축 질병은 원충성 질병으로, 초지 방목 가축에서 주로 발생함(바베시아증, 타일레리아증, 아나플라스마증)
- 진드기의 흡혈로 진드기 내 원충이 가축 혈관에 침입하여 적혈구를 파괴하며, 고열, 빈혈, 혈색소뇨(핏빛오줌) 등의 증상이 나타남
 - 수의사 처방을 받아 방목 전에 원충성 질병 치료제 주사 및 방목 중에도 월 1회 등 위로 바르는 외부 기생충 구제제 처리 필요

3

하계 사료작물 파종

- 하계 사료작물은 사료용 옥수수, 수수류, 사료용 벼, 사료 피 등이 있으며, 작물의 생리적 특성, 재배지의 토양 및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작목을 선택해야 함
- 벼를 제외하면 대부분 밭작물이므로 습해에 약함. 논 재배 시 재배지의 배수등급 확인 및 배수로 설치 필수
 - 인근 논에 수분 침투 방지와 기계작업 편리를 위해 조사료 재배지를 집단화하고 규모화하는 것이 필요
- (사료용 옥수수) 사료가치와 가축 기호성이 높은 작물
 - (품종선택) 암이삭 비율이 높고 습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 (파종시기) 파종 적기는 4월 중·하순(지온 10℃ 이상), 이모작의 경우 동계사료작물 수확 후 5월 말~6월 상순 파종
 - (파종량) 헥타르당 20~30kg, 이랑폭 70~75cm, 포기 사이 15~20cm
- (수수류) 가축 기호성은 다소 낮지만 재배 쉽고 재생력 뛰어나 생산성 높음
 - (파종시기) 5월 상·중순(지온 12℃ 이상)
 - (파종량) 헥타르 당 줄뿌림 30~40kg(이랑 폭 40~50cm), 흩어뿌림 50~60kg
- (사료용 벼) 다수확을 위해 밀식재배하고, 질소비료를 헥타르당 150~170kg 정도로 식용 벼 재배보다 많이 사용함
 - 제초제 사용 시 백화 증상을 일으키는 제초제는 피해야 함
- (사료 피) 남부지역과 간척지 중심으로 재배 확대되고 있음
 - (파종시기) 5월 중·하순, 이모작 시 5월 말~6월 상순
 - (파종량) 헥타르 당 줄뿌림 15~20kg, 흩어뿌림 30~40kg

4

사료작물 비래해충 예방

- 멸강나방과 열대거세미나방 등 비래해충에 의해 옥수수과 맥류 등 벼과(科) 작물과 목초류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자주 살펴야 함
- 비래해충 성충은 편서풍을 타고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날아오고, 유충은 주로 야간에 잎과 줄기를 갉아먹음
 - 유충에 의한 피해는 6월 중순부터 7월 상순에 가장 심하며, 9월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함



멸강나방 성충



열대거세미나방 성충



멸강나방 알덩어리



열대거세미나방 알덩어리

- 비래해충은 짧은 기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성충은 주변에 트랩 등을 설치하여 조사하고, 유충은 상시 예찰하여 발견 즉시, 초기에 방제해야 함(유충 1~3령기)
 - 유충은 야행성이므로 해뜨기 전이나 해지고 난 뒤 잎과 줄기에 약제가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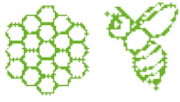
* 작물별 등록약제 정보: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참고(psis.rda.go.kr)

< 열대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의 애벌레 형태 비교 >

	열대거세미나방	멸강나방
애벌레 (머리 앞부분)	 세로선이 흰색 또는 노랑색	 선이 연하거나 진한 검정색
애벌레 (배 끝부분)	 4개의 정방형의 검정색 돌기 뚜렷	 뚜렷한 검정색 돌기가 없음

* 자료제공 : 국립축산과학원 백영목 지도관(063-238-7205)
국립축산과학원 이경은 지도사(063-238-7207)

( 맨 앞으로)



제9장 양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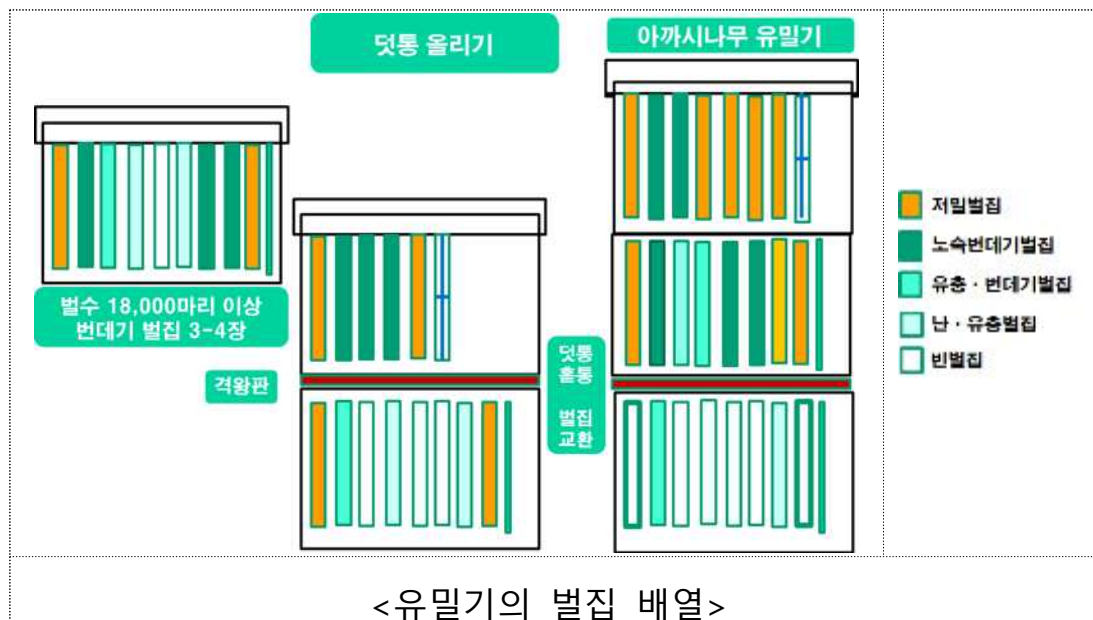
1 유밀기와 유밀기 벌무리 관리

- (유밀기) 산에는 각종 식물의 꽃이 피고 6월 하순부터 7월에 걸쳐 화이트클로버, 밤나무, 피나무 등의 꽃이 피기 시작하여 각종 양봉 산물의 생산 적기임
 - 유밀기에는 분봉열이 일어나기 쉬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한 번 분봉열을 일으킨 벌무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으며 외부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듦. 따라서 아무리 강한 벌무리라 하더라도 분봉이 일어나면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어 수밀력이 반 이하로 떨어짐
 - 유밀기에는 꿀의 생산과 동시에 먹이 저장 공간 조성, 신규 벌집 조성(벌집 기초틀을 이용한 자연 조성), 후계 여왕벌(신왕)의 양성, 벌무리 증식 및 밀랍 생산 등이 이루어져 양봉업에서 가장 바쁜 시기로 이 시기에는 꿀 생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벌무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수확한 꿀이 많아지면 덧통을 이용하여 먹이 저장 공간을 만들어 주는 등의 관리가 필요
- (봉군 증식법) 아까시꽃 개화기에 수밀 자격군이 되지 못한 벌무리를 밤꿀이 들어오기 전까지 빠르게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수평격왕판과 덧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 홑통과 덧통 사이에 수평격왕판을 설치한 후, 홑통에 여왕벌을 배치하여 여왕벌이 덧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듦. 홑통에서 여왕벌의 산란이 지속되고 봉판이 만들어지게 되면 덧통으로 올리고 홑통에는 빈벌집을 넣어주어 여왕벌의 산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줌.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왕벌은 움직임이

제한되어 에너지 소모가 적은 반면, 덧통에 넣은 봉판에서 어린 벌들이 깨어나 벌무리 세력이 증가하게 되며 벌들이 깨어나온 자리에 꿀을 채우게 되어 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짐

○ (유밀기 벌무리 벌집 배열) 유밀기 벌무리 내 벌집 배열은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홀통의 양쪽 가장자리 바깥 벌집은 빈 벌집으로 대체, 일벌들이 바로 꿀을 채우게 함

- 다음 날 벌무리 검사 시 꿀이 채워지면 이 벌집들을 바로 덧통으로 올리고 홀통에는 다시 빈 벌집을 넣어주어 일벌들로 하여금 꿀을 채우도록 함



○ (분봉열 예방) 6월은 분봉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임. 벌무리 세력에 비해 내부의 생활공간이 부족하다면 분봉열이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게 되면 분봉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봉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수벌집과 왕대(여왕벌방)를 다수 짓기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수벌집과 왕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자주 내검을 하여 이들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음

* 분봉열로 인해 왕대가 생기면, 16일 뒤 처녀왕이 태어나 분봉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봉열이 발생하면 분봉 준비로 일벌들은 외부 활동을 줄이고 먹이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벌무리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또한 채밀기 이전에 분봉이 일어나게 되면, 벌무리 세력의 절반을 잃게 되므로 분봉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함. 분봉열의 예방을 위해서는 세력에 맞게 벌집을 지원해주거나 벌통 입구를 넓혀주거나 세력 고르기, 벌집 간격 벌리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벌무리 내부의 공간확보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음
- (벌집 짓기) 밀랍 기초로 이루어진 벌집 기초틀(소초광)에 꿀벌이 밀랍을 분비해 만든 새로운 벌집을 확보해 놓는 일은 양봉업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
- 벌집이 오래되면 벌방이 좁아져 산란 및 육아에 좋지 않으며, 농약 등이 잔류 될 확률이 높음. 정상 벌집들은 분봉열 또는 일벌산란 등으로 벌집 자체가 수벌 벌집으로 개조되는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분의 벌집을 다수 확보해야 벌무리 관리가 수월함
- 유밀기에는 꿀이 들어오는 동시에, 세력 확장을 위해 덧집을 많이 짓는 시기임. 분봉열이 발생한 벌무리 가장자리에 벌집기초틀을 하나씩 넣는 방식으로 새로운 벌집을 생산할 수 있음
- (질병 예방) 채밀기에는 채밀된 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약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 시기는 벌무리의 발육이 왕성한 동시에, 꿀벌응애의 발육 또한 왕성해지며 이를 매개로 한 질병 등에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임
- 벌무리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날개불구병, 부저병, 백묵병, 석고병 등이 있음. 질병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벌집 등을 활용한 꿀벌응애의 물리적 방제 필요

- 질병이 발생한 벌무리는 채밀을 포기하고 약제 처리 등 질병 구제 활동에 전념해야 함. 일부 벌무리에 발생한 병해충은 양봉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

*** 자료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박보선 연구사(063-238-2872)**

( 맨 앞으로)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